

부산체육

톡톡



부산광역시체육회

47873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EL. 051. 500. 7900 / FAX. 051. 505. 6306

Copyright © 2014 Busan Sport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본 메일은 발신전용으로 회신되지 않습니다.

MARCH 2021 VOL.13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영광의 주역

조정 이상우 원로 인터뷰

노력의 땀방울

부산광역시볼링협회 회장

송연익 인터뷰

구·군체육회를 가다

부산의 중심 도시에서

부산체육의 발전 핵심 도시로!

서구체육회

CONTENTS



영광의 주역

조정 국가대표 출신 이상우 원로

물살을 가르는 환상의 팀워크, 일심동체 조정으로 피어나다



노력의 땀방울

부산광역시보빙협회 회장 송연익

노블레스 오블리주! 나눔 봉사의 미덕 실천가



구·군체육회를 가다

서구체육회

부산의 중심 도시에서 부산체육의 발전 핵심 도시로!



스포츠 전국투어

부산 갈매길

봄을 맞아 비상하는 갈매기처럼 새 마음 새 뜻으로 걸어보다



BSC 뉴스

스포츠 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교육 개최

영광의 주역

조정 국가대표 출신
이상우 원로



물살을 가르는 환상의 팀워크, 일심동체(一心同體) 조정으로 피어나다

대한민국 최초의 조정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교직에서도 여러 제자들과 함께 조정경기를 해왔다. 대한조정협회와 부산조정협회 부회장이자 아시아조정연맹(ARF, Asian Rowing Federation) 부회장 그리고 대한조정협회 국제심판 역임까지, 한평생 조정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유산소운동과 근력운동을 잊지 않고 실내용 조정기구인 로잉머신(Rowing machine)을 타는 이유는 조정경기를 즐기기 위해서. 모두가 조정경기의 매력을 알기 바란다는 이상우 원로의 이야기다.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1학년이던 1961년, 정부에서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정, 낙하산훈련, 사격 등을 권하던 시기입니다. 크루들 모두 체격이 좋고 체력에도 자신 있었는데 각오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보트에서 밸런스를 맞추면서 온몸으로 노를 저으면 양 손목이 툭툭 부을 정도였으니까요.”

이듬해인 1962년 10월, 대한조정협회가 창설되며 전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신장 180cm, 체중 75kg 이상을 차출해 체력 테스트를 진행했다. 1964년 제18회 동경 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 조정선수 선발에 나선 것. 그 후로 2년 정도 계속된 치열한 연습과 훈련. 그렇게 대한민국 최초의 조정경기 국가대표로서 동경올림픽에 참여했지만 아쉬움도 남았다. 메달 석권에 실패했기 때문. 하지만 이후로도 이어진 조정과의 행복한 동행, 이제는 모두 소중한 추억이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정경기가 생활체육화 되고 여러 클럽 활동으로 번져가기를 바랍니다. 취미로 즐기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국가대표 선수도 배출되는 것. 제가 바라는 대한민국 조정의 내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체육 VOL.3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나눔 봉사의 미덕 실천가

지난 1월 20일(수) 부산광역시볼링협회장에 취임한 (주)에스엠산업 송연익 대표. 2012년 부산광역시 볼링협회 이사직을 맡으면서 협회와 연을 맺었고 회장의 권한이 주어진 만큼 그간 품어둔 계획을 제대로 펼쳐낼 요량이다. 볼링 전용경기장 설립은 그가 이루고픈 0순위 목표다.

“전국 30여 개 지자체에 국제 규모의 공공 볼링 전용경기장이 있는데 부산에는 50개 정도의 사설 볼링경기장만 있어요. 2025년 부산에서 전국체육 대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다른 도시로 가서 경기를 치러야 할 상황인 거죠.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체육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대한볼링협회의 도움도 요청할 겁니다.”

노력의 땀방울

부산광역시볼링협회
송연익 회장

두 번째 중점 과제는 ‘꿈나무 육성과 스포츠클럽 활성화’다. 스타 선수를 키우는 데만 집중할 게 아니라 꿈나무 선수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사업가 출신이라 그런지 제 머릿속에는 늘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요. 부산광역시볼링협회 임원들과 함께 제 임기 내에 계획한 사업을 현실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지난 2018년 부산광역시볼링협회가 아시아 최초로 야외 경기장에서 개최한 부산컵 국제 오픈볼링 대회는 부산 볼링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대회로 불린다. 송 회장은 올해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2회 부산컵 국제오픈 볼링대회에도 도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의 중심 도시에서 부산체육의 발전 핵심 도시로!

구·군체육회를 가다 서구체육회



2016년 서구생활체육회와 서구체육회가 통합된 이후 서구체육회는 지금까지 13만 서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 지난 2020년 1월 15일 서구체육회는 민선 1기 김용구 회장을 선출했으며, 조현서 사무국장과 체육 전공자 출신인 어르신 지도자 2명과 일반 지도자 3명은 서구체육회를 이끄는 주축이다.

서구 지역이 노인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데다 나날이 노년층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서구체육회는 노인체육에 대한 관심을 넓혀왔다.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수업을 준비, 진행하면서 노인체육의 활성화와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이끌어온 주역이기도 하다.



서구체육회 대표 수상내역

2017년

제12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배드민턴 공동 3위
제12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체조 준우승

2018년

2018 부산 씨름왕 선발대회 서구 중년부 3위(장진규)
제13회 여성체육대회 체조 공동 3위
제29회 부산시민체육대회 볼링 우승
제29회 부산시민체육대회 태권도 장려상

2019년

제14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배드민턴 우승
(60~69세 여자)
제30회 부산시민체육대회 태권도 단체전 2위

자세한 내용은 부산체육 VOL.3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구체육회에는 게이트볼, 탁구, 축구, 테니스 등 16개 종목 72개 클럽 2,045명의 동호인이 속해 있어요. 더 많은 지역민이 서구체육회 네이버 밴드에서 운동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큰 바람은 코로나19가 완화돼 예전처럼 한 공간에 모여 땀을 흘리며 운동하는 거랍니다.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 올해 하반기에는 꼭 서구 체육인의 밤을 개최하려고 해요.”

서구체육회 지도자들은 올해 4월부터 서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말에 진행하는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사업과 서구 시민들의 생활 체육의 참여를 이끄는 ‘생활체육 무료교실’ 사업, 대한축구협회에서 진행하는 1-리그 축구 유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6월 서구체육회가 법안화되면 수익을 창출하는 다양한 사업들도 계획 중이다. 김 회장은 향후 체육복합시설을 건립하겠다는 희망도 내비쳤다.



스포츠 전국투어

봄을 맞아 비상하는 갈매기처럼 새 마음 새 뜻으로 걸어보는 부산 갈맷길



갈맷길 걷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외 활동에 제약이 많은 요즘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야외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9개 코스 21개 구간으로 나뉘어진 갈맷길의 총 길이는 278.8km로 모두 완보하려면 어른 걸음으로 91시간 정도가 걸린다.

갈맷길에는 구간별 시작점, 중간점, 종점마다 39개소의 인증대가 설치되어 있어 도보인증을 받을 수 있다. 도보인증제는 머물며 보고 즐길 수 있는 갈맷길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도보인증수첩을 수령해 스탬프를 찍고 완주 인증을 받아 기념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갈맷길을 걷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고 싶다면 부산광역시체육회와 함께 운동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플로깅, '클린 갈맷길 캠페인'으로 몸도 마음도 건강한 활기찬 봄을 맞이해 보자.

스포츠 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교육 개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부산광역시체육회·부산광역시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스포츠 폭력 및 인권침해 근절과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인권교육은 최근 부산체육계 폭력 및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남에 따라 부산 체육계의 인권침해 및 폭력 방지를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스포츠 4대 악 근절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 인권 감수성 향상을 목표로, 부산 관내 실업팀 선수단 대상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 선수 개별 상담 및 모니터링을 위한 연중 상시 고충상담 창구 운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